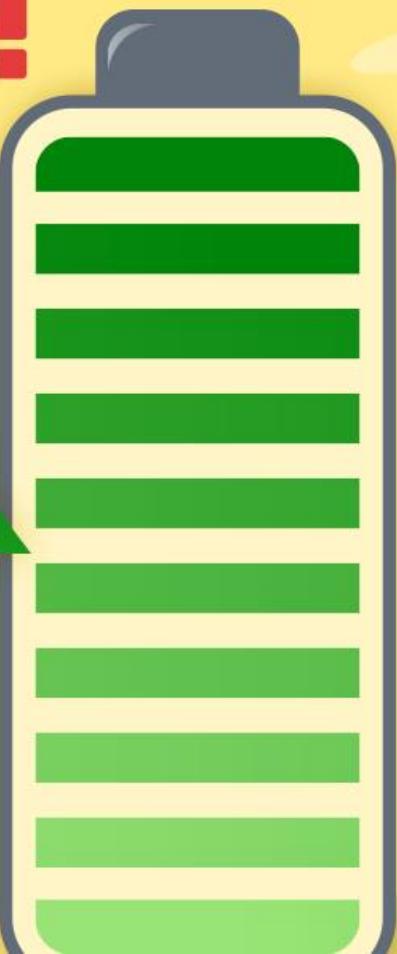


위험한 해체공사, 제도 강화로 안전 LEVEL UP!

안전 게이지 충전 완료!



구조물이 불안정해져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해체공사

보다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2022년 8월부터 변경된 제도가 적용됩니다!



건물을 안전하게
해체(철거)할 수 있도록
관련 제도를 어떻게 개선했는지
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?



해체공사의 해체계획서(설계도서)는 전문가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.

- 1 허가 대상은 **관계전문가가 직접 해체계획서를 작성**하고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.
- 2 신고 대상은 **관계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검토**해야 합니다.



전문가

-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
-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
(건축구조, 건축시공, 건설안전기술사)

현장의 안전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.



허가대상의 경우, 해체공사 전 **허가기관 담당자**가
직접 현장에서 **안전상태**를 확인합니다.

- 공사 중 감리자가 업무에 소홀한 경우에도 현장 방문해 확인

해체공사 감리자의 전문교육이 의무화 됩니다.



감리자는 **전문교육(35시간)** 및
보수교육(14시간, 매 3년)을 받아야 합니다.

- + 감리자는 수행 중인 감리업무 내용을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에 매일 등록해야 함

감리자의 공사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더욱 강하게 처벌됩니다.

WARNING



해체작업자와 감리자는 계획서대로 **공사 및
안전관리대책**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

- +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
감리자, 시공사 처벌

해체 공사 내용 변경 시 허가(신고) 대상입니다.



허가(신고) 받은 해체 공법·순서·범위·장비 등
변경 시 **허가권자**에게 **변경계획 적정성**을
검토 받아야 합니다.

 해체공사기간이 30일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**변경신고**



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.

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해
불안한 해체공사의 안전을 함께 만들어갑시다.

